



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, 이틀뒤 결판 한덕수 총리, 최종투표 위해 26일 출국

- 한국·이탈리아·사우디 격돌...28일 PT 후 182개국이 마지막 선택
- 한 총리, “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 다할 것”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11.26(일)~30(목)간 3박 5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,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이뤄지는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(BIE) 총회에 참석한다.
 - 이번 방문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,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한다.
- 11.28(화) 개최되는 제173차 BIE 총회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경쟁국간 최종 프레젠테이션(PT)과 개최지 결정 투표가 진행된다.
 - 한 총리는 투표 마지막 순간까지 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. 부산엑스포가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, 전세계가 모여 기후변화·불평등·디지털격차 등 인류 공통의 난제에 대해 지혜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고,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열망을 거듭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.
 - 한 총리는 “다른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해 치열하게 달려왔다”면서 “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별첨

**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509일 동안('22.07.08-'23.11.28)
지구 495바퀴를 돌았습니다.**

□ **민관 이동거리 : 1,989만 1,579km, 지구 495바퀴**

(‘23.11월 기준)

구분	총 거리(km)	지구 바퀴수
정부	9,768,194	243바퀴
기업	10,123,385	252바퀴
총합계	19,891,579	495바퀴

* 대통령, 총리, 국무위원, 대통령 특사 등 정부측 인사 및 13개 기업 CEO·임직원들의 이동거리 합산한 수치

□ **대통령 및 국무총리 방문 국가 : 33개국**

(23.11월 기준)

대통령·총리 33개국 (중복방문국 포함)	다수	대통령 12개국 * 미국, 영국, 프랑스, 폴란드, 일본, 인도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아랍에미리트 등 국무총리 25개국 * 덴마크, 크로아티아, 그리스, 말라위, 토고, 카메룬, 노르웨이, 핀란드 등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

* 대통령·총리가 모두 방문한 나라,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여러번 방문한 나라도 있음

□ **민관이 만난 사람 : 각국 정상 포함 3,472명 (괄호 안은 정상 수)**

- 대통령 : 96개국 462명 (110명)
- 국무총리 : 112개국 203명 (74명)
- 13개 기업 : 174개국 2,807명 (382명)

* 상대국 정상, 각료, 여야 정치인, 고위·실무관료, 외교관, 종교지도자, 대학총장, 기업인, 국제기구 관계자, 정재계 원로 등

※ 민관 이동거리

(‘23.2월말 기준)

구분	총 거리(km)	지구 바퀴수
정부	2,349,004	58바퀴
기업	1,284,023	32바퀴
총합계	3,633,027	90바퀴

(‘23.9월말 기준)

구분	총 거리(km)	지구 바퀴수
정부	8,506,407	212바퀴
기업	7,902,415	197바퀴
총합계	16,408,822	409바퀴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우향제	(044-200-2211)
		담당자	전문위원	김태민	(044-200-2220)
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박영철	(044-200-2136)
		담당자	사무관	박철순	(044-200-2135)
	국무조정실 소통총괄비서관실	책임자	과 장	이화원	(044-200-2698)
		담당자	사무관	연희정	(044-200-2718)
	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	책임자	팀 장	김덕구	(02-2036-98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훈	(02-2036-9826)
	부산시	책임자	과 장	명지정	(051-888-6450)
				담당자	문저윤

